

광주·전남 저축은행들 ‘생존 기로’에 섰다

몸집 불린 수도권 업체들 지방진출에 영업환경 악화

자산규모 25% 급감... 자금운용 대상 中企로 다변화해야

지난해 6월 말 바닥을 찍었던 저축은행 자산이 최근 1년 사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역 저축은행들은 되레 총자산이 줄고 영업환경 또한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업계 등과의 합병으로 몸집을 불린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 진출이 거세고 영업환경도 나빠지면서 지역 저축은행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저축은행 자산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39조5951억 원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사태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저축은행 총자산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점차 안정되면서 작년 9월 말 37조615억원, 12월 말 37조8602억원 등 3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작년 6월 말 18조288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21조7832억원으로 약 19.1% 증가하는 등 서울의 자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부산·울산·경남은 7.1% 증가했고 대구·경북·강원은 4.6%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전남·전북·제주는 1조6490억원에서 1조2370억원으로 24.9% 급감했으며, 대전·충남·충북은 19.2% 인천·경기는 1.0% 감소했다. 실제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본점을 둔 대한·동양·더블·스마트·센트럴·골드브릿지 등 6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1조1937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47.2%나 감소했

다. 자산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은 지역 저축은행 총자산의 47.7%(2010년 기준)를 차지하던 보해저축은행이 2011년 2월 영업정지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지난해 8월 대규모 영업부실이 발생한 골드브릿지의 자산이 감소한 탓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명암이 엇갈린 배경은 지역 경기와 더불어 저축은행 사태 이후 바뀐 영업구조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저축은행들이 대규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대출 등 영업형태가 공격적이었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는 보다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하면서 개인신용대출, 햇살론, 스타론 등으로 핵심업무가 재편됐기 때문이다. 개인신용대출, 햇살론, 스타론 등은 경기가 좋으면서 고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지역에서 활성화는데 광주·전남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설명이다.

최근 4년 새 광주·전남 저축은행의 지점은 4개가 줄어든 반면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둔 대형 저축은행의 지역 지점은 5개에서 11개로 두 배 넘게 증가한 점을 이를 반영한다.

이와 관련 지역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 활성화 관련 상품 ▲중소기업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상품 ▲역외 여신출장소 설치 완화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전성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생존기로서 서 있는 지역 저축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형자산 매각하는 등 자산 재조정과 함께 가계에 집중하고 있는 자금운용 대상을 소상공인 등 지역 중소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55.16 (+8.20) ▲ 금리 (국고채 3년) 1.79% (+0.02)

▲ 코스닥 734.61 (+4.69) ▼ 환율 (USD) 1098.80원 (-8.30)

용산역 ‘코레일멤버십라운지’ 새단장

KTX 특실 고객·철도회원 서비스 제공

서울 용산역 ‘코레일멤버십라운지’가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코레일은 22일, 용산역 코레일멤버십라운지의 리뉴얼 공사를 마치고 21일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용산역 3층에 위치한 코레일멤버십라운지는 고객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 좌석을 늘렸다. 인테리어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꾸몄다.



새롭게 단장한 용산역 코레일멤버십라운지

코레일은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2014년 2월 서울역을 시작으로 대전, 동대구, 부산역 멤버십라운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용산역 재개장을 끝으로 전국의 코레일멤버십라운지 리뉴얼을 모두 마무리했다.

코레일멤버십라운지는 지난 2005년 고객들이 열차 대기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고품격 휴식 공간으로 하루 17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TV, 컴퓨터, 유·무선 인터넷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휴대폰 충전, 음료 시음, 서적·신문 열람 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당일 KTX 특실 이용객과 철도회원이 이용할 수 있다. 특실 고객은 승차

권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으며 철도회원은 회원카드를 소지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철도회원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본인의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멤버십라운지에 입장할 때 사용하면 된다. 이용 시간은 서울·용산·부산역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며, 대전·동대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특별 열차 이용시간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

광주은행, 아시아 시장 진출 모색

JB금융 소속 JB우리카페탈

하노이에 대표사무소 설립

광주은행이 지주사인 JB금융그룹을 통해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JB금융그룹(회장 김한)의 자회사인 JB우리카페탈은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 지난 19일 관련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 연락과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할 예정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B금융그룹은 이 대표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등 해외시장에서 그룹의 최적 비즈니스 모델 및 운영방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JB금융지주는 국내시장에 인접한 아시아 시장에 우선 진출하는 방향

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ASEAN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우 ROE(Return On Equity·자기자본 이익률)가 5% 수준임에 반해 ASEAN지역 국가는 평균 20% 수준의 높은 ROE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JB금융그룹의 장기성장과 수익력 제고를 위한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무소 설립은 JB금융그룹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하나로, 글로벌 선도회사들이 자국의 핵심 사업을 해외에 복제하여 성공한 사례를 교훈 삼겠다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보유한 JB우리카페탈이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시장의 현지화에 성공한 이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이 현지에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SK·LG유플러스 이용자, 모바일 IPTV로 지상파 못 본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22일부터 모바일 인터넷(IP)TV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다.

2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모바일 IPTV를 통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IPTV는 신규가

입자를 대상으로 지상파 방송 서비스를 이달 1일부터 중단하되 기존 가입자는 연말까지 서비스하기로 했으나 기존 가입자도 이날부터 모바일 IPTV를 통한 지상파 시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KT는 지상파와의 계약조건이 달라 11월까지 모바일 IPTV를 통한 지상파 시청이 가능하다.

/임동률기자fexian@kwangju.co.kr



롯데백화점 팝아트 작품 전시

2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 문화센터를 찾은 고객들이 벽에 걸린 문화센터 회원들의 팝아트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문화센터를 찾는 일반 고객들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지난 달부터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차, 2세대 K5 사전계약 시행

다음달 중순 출시 예정

7단 변속기 탑재 성능 강화

기아자동차가 22일부터 2세대 K5의 사전계약을 시행한다. 오는 7월 중순 출시 예정인 신형 K5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이다.

새 모델은 기존보다 디자인을 더 다듬고 성능과 사양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2개의 디자인과 7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 없던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를 탑재한 1.6 터보와 1.7 디젤 모델이 추가돼 라인업이 확대됐다.

기아차는 다음달 신형 K5의 7개 모델 가운데 친환경 2개 모델을 제외한 기술린 3개 모델과(2.0, 2.0 터보, 1.6 터보) 1.7 디젤, 2.0 LPI 등 5개 모델을 우선 시

판한다. 신형 K5의 하이브리드는 올해 4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년 초에 각각 추가로 선보이며 7개의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가격대는 주력 모델인 2.0 가솔린은 2235만~2900만원, 1.6 터보는 2510만~2850만원, 2.0 터보는 3105만~3145만원이다. 2.0 가솔린을 기준으로 가격이 기존 모델보다 25만원에서 80만원이 올랐으나 가장 많이 판매되는 프레임 스티지 트림은 오히려 130만원에서 170만원 인하됐다. /임동률기자fexian@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D)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강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승,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남명도빌딩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